

# 與 “원안대로” vs 野 “중재안 수용”... 예산 협상 또 ‘빈손’

###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위법성 논란... 여야 회동 없이 장외 설전 민주 “국힘, 중재안 불수용 이유·대안 제시해야”... 의원들 농성 계획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20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산이 5억여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기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개 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

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린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

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설치됐지만, 이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어렵게, 통 크게 양보해서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당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억지 봉기를 부린다”며 “입장이 달라지지 않

면 더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래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소속 의원들의 농성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경찰국과 인사정보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야

당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 정부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탈락, 인권현실 상징”

### 민주당 인권위 출범... 이재명 대표 “구제 활동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 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사실을 보도했다고 언론사를 핍박하거나 수백억의 세금을 부과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국에서 방글라데시 등과 달리 탈락했는데, 인권 상황이 어떤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다”면서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져 내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뿐 아니라 실제 발생 시 우리 당 스스로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와 인권 말살도 서슴지 않는다”면서 “압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소통을 차단하며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등법이 시행 중인 만큼, 평등법은 이제 국제적 보편이 됐다”면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범국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인권위는 당 산하 집행기구로 인권 정책, 인권 관련 사안을 총괄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ju.co.kr

##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승진 정부 인사... 6개월만에 ‘초고속’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이 6개월 만에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정부는 20일 김 국장과 조지호(54) 경찰청 공안녕정보국장 등 치안감 2명의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 국장은 6개월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광주 출생인 김 국장은 광주교과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경찰청 한창훈 교통지도부장 겸 병우 경찰관리관, 최현석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등 경무관 3명은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치안정감과 치안감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정해진다.  
/연합뉴스

## 민주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반대”

###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안전운임제 반드시 연장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여지지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금리가 다소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하물론 승·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연장을)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시 일몰법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거론,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기업이 많고, 사장·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을 고려해 보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있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월급 안정화 관련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ju.co.kr

## 與,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포함 제안

여당이 크리스마스(12월 25일)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닷새 뒤인 올해 크리스마스는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이렇게

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은 제외했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모두 일요일이었으며 내년엔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이 토요일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 공휴일 제도 효과를 보니 유동이나 여행, 외식업체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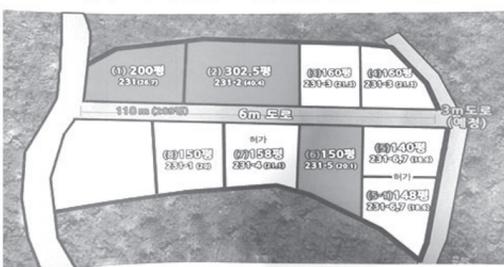
##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박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